

장성 효도권 이용자 98.5% '만족'

장성 효도권을 이용하는 어르신 대다수가 효도권 사업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은 지난 2월 실시한 '효도권 지원 사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98.5%가 효도권 지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85%는 1년 동안 개인당 18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효도권 지원 단가를 늘려 1인당 연간 3만6천원씩 인상한 바 있다.

단가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96.7%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효도권 사용시 우선 순위로 이용자의 52%는 목욕업소를, 48%는 이·미용을 선택해 업소별 선호도가 균형을 이뤘다.

지난 조사에서는 목욕업소가 62.7%의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단가 인상으로 이용자의 업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5천원 단위로만 발행되는 효도권을 1천원 단위로 추가 발행해 이용대금 지불시 차액 환불이 불편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효도권 모니터단을 운영해 효도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1천500여명 군민 대상 만족도 조사... "한해 18만원 지원 적정" 응답 모니터단 운영·1천원 단위 추가 발행 등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노력



장성 효도권을 이용하는 어르신 대다수가 효도권 사업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유두석 장성군수가 효도권 사용처인 관내 미용실을 방문한 모습. /장성군 제공

계도를 가기로 했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목욕과 이·미용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도권

을 매달 1인당 3장(1만5천원)씩 지급하

는 장성의 대표적인 실버복지 정책이다. 어르신들의 위생 상태를 개선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장성=정윤섭 기자 jjs@

나주시보건소, 건강한 아파트 사업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나주시 보건소는 남평 중우하나린 아파트와 대호동 대방노블랜드 1차 아파트를 '건강한 아파트'로 선정, 이달부터 주민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건강 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신체활동', '건강 체험관 운영', '금연 아파트 지정' 등 건강한 생활공간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다.

보건소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2곳 아파트에 각각 주민건강위원회와 건강리더를 구성·선출하고, 건강생활 실천 홍보 및 주민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주 2회 전문 강사 파견을 통한 입주자를 위한 건강요가, 밸런스워킹 등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화순, 귀농·귀촌 실습교육 약정 체결



화순군이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귀농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선도 농가와 귀농 연수생 12명이 '귀농 연수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을 맺은 귀농 연수생은 영농 기술, 품질관리 기법, 경영 마케팅 능력 등을 키우기 위해 선도 농가와 1:1로 귀농 연수를 하게 된다.

연수생 12명 약정 참여... 시행착오↓ 효과 기대

5개월 동안 한 달에 20일씩 희망 작목에 관한 재배기술을 전수받고 스스로 적용해 영농 실습을 한다.

주요 연수 작목은 쌀, 복숭아, 딸기, 고추, 한우 등이다.

군은 화순군 전입 5년 이내인 귀농인과 지역 선도 농가의 신청을 받아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귀농 연수생은 매월 최대 80만 원까지 교육 훈련비를 지급받고, 선도 농가에는 월 40만 원의 교수수당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귀농 연수생 47명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고 그 중 89%가 화순군에 정착했다.

군은 귀농 희망자와 초보자들을 위한

'새내기 영농체험농장'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딸기와 흑염소 선도 농가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작목당 10명이다.

또한, '귀농·귀촌 현장 맞춤형 학습 지원사업' 대상자도 모집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창업에 관해 미리 배우고 체험하면서 실패 없는 행복한 귀농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귀농·귀촌에 관한 정보, 현지 안내, 작목 선택, 작목 재배기술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061-379-54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영광, 2차 고속 전기자동차 보급한다

18일 29대 보급 공고... 25일까지 신청접수

영광군은 2019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으로 지난 2월 1차 공고에 이어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보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고속전기자동차 66대를 보급하는 영광군은 1차 공고 결과 37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된 바 있으며 오는 18일 잔여물량 29대에 대한 2차 보급 공고를 실시하고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지방세 등 세금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 지원을 받은 자 및 신청자와 동일 세대원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2차 보급부터 초소형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인상 된다.

기존 40대였던 초소형전기차 보급 물량을 24대로 줄이는 대신 당초 420만원이었던 군비 보조금을 280만원 추가 인상에 군비 700만원과 국비 420만원을 포함한 총 1천1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초소형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구매보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차량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영광군청 방문 없이 차량 판매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가 보급대상 미달인 경우 전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방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총 50대의 전기이륜차를 오는 25일부터 보급할 예정이며 전기이륜차 1대 당 보조금은 차량 유형 및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 219~350만원이 지원된다"고 전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담양, 굴삭기·트랙터 등 농기계 교육

안전한 사용 위한 실습... 농촌사고 예방 '기대'

담양군은 농기계 조작이 서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굴삭기와 트랙터 교육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농업용 굴삭기 안전사용 교육은 작년까지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실습교육장에서 작동원리, 운전조작, 취급요령 등 실습을 위주로 진행해 임대한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실습교육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 및 간단한 정비기술 등도 병행해 추진해

농업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조작이 미숙해 농기계 임대가 불가능했던 농업인들의 임대율이 높아지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기간이 끝난 뒤에도 매주 수요일 오후를 활용한 상시교육 체계로 운영해 농업인들의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양=강종연 기자 jlbest1@



jndomin.kr

희망

을 배달하는 신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제, 스포츠 등
신문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의 힘을 줍니다.

전남도민일보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T 062 227 0000 F 062 227 0084 www.jndomin.kr